

한 원치주의자의 삶과 꿈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 다》

천규석 지음



공동체의 꿈을 키우는 농부 천규석씨

농부 천규석은 보기 드문 기인이자다. 파격적인 기행을 일삼아서가 아니라 '극단적 원치주의자'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미학과 졸업, 1965년 귀향, 일체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법 실천, 도농협조 시스템인 '한살림 운동' 전개... 농촌철학·생활철학을 담은 에세이집인 이 책은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원치주의자의 삶과 꿈의 기록이다. 소찬에 현미 잡곡밥만을 고집하는 그가 소비의 욕망에 몸달아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명하면서도 울림이 깊다. | 박천홍

실천문학/A5신/278면/8000원

일본서 우리 도깨비 이야기 출간  
《だまされたトッケビ》

김열규 지음·정승각 그림

일본의 유명 어린이출판사 후쿠잉칸쇼텐에서 펴내는 <세계의 민담> 가운데 우리나라 도깨비 이야기를 담은 《だまされたトッケビ》가 나왔다. 여기에 묶인 15편은 인제대 김열규 교수가 쓴 《도깨비 날개를 달다-도깨비와 한국인》(춘추사, 1991)에서 골랐고, 그림을 그린 이는 《까막나라의 삼사리》·《강아지똥》의 화가로 알려진 정승각씨여서 눈길을 끈다.

흑백이라는 표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붓으로 그린 굵은 선과 먹의 농담으로 표현한 그림이 한국적인 향기를 물씬 풍긴다. 왜색 짙은 도깨비로 인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도깨비 형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태인데, 익살스럽고 사람과 친근한 도깨비의 다양한 형상을 잘 표현했다.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반, 경대, 가마솥 등의 생활용품도 정겹다. | 이현주

후쿠잉칸쇼텐/A5/296면/1365 엔

다시 보는 우리 옛집 이야기  
《한국의 전통민가》

주남철 지음

한국의 전통 건축은 궁궐·관청·사찰 등 공적물과 '백성의 집'인 민가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전통 양식이 파괴되지 않은 1910년 이전에 지어진 전통 민가를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전통 민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용도·형태·구조·재료 등에 따른 기능을 설명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류했다. 또한 각 지방에 현존하는 민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많은 도판과 사진, 그리고 민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밑그림(설계도) 등을 실어 이해도를 높였다. 현대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고유의 주거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오원진

아르케/A5신/538면/27,000원

기독교의 동물 상징 그림 사진  
《피지올로구스》



중세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도상학의 기본 자료는 성서다. 그와 함께 기독교 도상의 중요한 상징사건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피지올로구스》와 《황금전설》이다. 이 가운데 《피지올로구스》는 성서에 등장하는 자연에 관한 신학적 의미를 켜 초기 기독교 도상 상징사건으로, 특히 비잔틴 교회의 조각장식과 중세 유럽의 교회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연에 대해 박식한 자'라는 뜻의 피지올로구스가 책 속에서는 저자 이름처럼 사용됐지만 책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성서에 나타난 해마·들나귀·진주 등 동물과 식물, 광물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지를 반영한다는 원칙에서 해설된다. 예를 들어 옆구리를 쪼아 흘러 나온 피로 죽은 새끼를 살리는 펠리컨은 십자가에 못박혀 인류를 구원한 예수의 상징이다. | 이현주

미술문화/B6/256면/10,000원



이국의 풍경 전하는 사진집  
《중국》·《안데스의 사람들》

윤주영 지음

도시는 또 하나의 자연  
《도시의 과학자들》

제임스 트레필 지음

프랑스의 낭만적 외면과 진보적인 내면  
《프랑스 실업자는 비행기를 탄다》

최연구 지음

《꿈꾸는 사람들은 빠리로 떠난다》

황규덕 지음



《출근시간 쭈저우》, 1990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중국. 《중국》은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모습을 구석구석 보여준다. 상하이·항저우 등 현대화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인민은 변화의 모습으로 읽힌다. 백화점·패스트푸드점이 늘어난 거리 풍경은 과연 여기가 중국인가 착각에 빠지게 하지만 앵글의 초점은 여전히 근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안데스의 사람들》은 해발 3천미터가 넘는 고지에 생활터전을 마련해 살아가는 오지 사람들을 담았다. 고달픈 삶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안데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 오원진

눈빛/B5·B6변형/130·204면/30,000·20,000원

도시란 무엇인가? 물리학자인 트레필은 비버의 댐이나 개미똥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하나의 자연생태계로 본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듯 도시도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도 탄생·성장·죽음의 순환을 거듭한다. 이 책은 과학자의 눈으로 풀어쓴 도시 관찰기다 (정영목 옮김).

저자는 도시의 미래는 결국 증가하는 인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도시는 정보 테크놀러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예언이다.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면서도 과학자 특유의 해박한 지식과 명쾌한 논리가 압권이다. | 박천홍

지호/A5신/336면/12,000원

자유, 평등, 박애, 연대. 이런 아름다운 단어는 프랑스혁명이 인류에게 선사한 선물이다. 우리에게 프랑스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그 단어들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 프랑스와 파리를 다룬 두 권의 책 《프랑스...》와 《꿈꾸는...》는 이 보편적 정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겨레21》 파리통신원인 최연구씨의 《프랑스...》가 파업·내각제·텔레비전 등 무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에 대해 말한다면, 영화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의 감독인 황규덕씨의 《꿈꾸는...》는 농부 같은 교장, 개똥 치우는 청소차, 소탈한 시장 등 일상적인 모습

에 스민 문화적 자유와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

두 권 다 자칫 이국에 대한 목적 없는 동경으로 흐를까 지극히 주의했다. 하지만 노숙자를 강제로 격리수용시키는 것을 복지정책이라고 여기는 나라의 사람으로 노숙자를 위해 지하철역 문을 잠그지 않는 사회를 동경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 김연수

삼인/A5신/184면/6500원

사과나무/A5신/224면/6500원

